예수부활 믿는 법

(막16:9-14)

9.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11.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부활 믿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법, 이 제목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믿는 데에 무슨 법이 따로 필요하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에게 보이신 다음에, 그냥 나사로의 부활이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무덤 문의 돌이 굴러지고 나사로가 베옷을 몸에 두른 채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실 텐데, 왜 꼭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마리아로 하여금 전하게 하셔서 전하는 말을 듣고 믿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라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처럼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써 맞닥뜨려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시하지 않고, 보고를 듣게 합니다.
증거를 듣게 합니다, 증인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1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제자가 시골로 갈 때도 나타나셨지만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리아로부터 전해들은 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이 두 제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없어지신 다음에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과는 전혀 달라요.
이상하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예수님이 직접 몸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다 이거에요.
이렇게 마리아가 첫 번째에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순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제일 먼저,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알아봅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를 알아봅니다.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는 대로 완악함과 연결을 시킨 주님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꼭 반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뜻이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니까.
사도신경이 원래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했고 그 뜻이 '나는 믿는다', 'I believe'라는 뜻입니다.
그 '나는 믿는다'라는 뜻인 크레도의 속뜻을 풀이해보면, '나는 내 심장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믿는다는 건 마음을 드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아버지가 전능하시다는 사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얘깁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는 말을 자꾸 반복하니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지금 날이 더워요, 제가 있는 강릉은 평균기온이 24,5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중부지방은 지금 가뭄에다 33,4도를 웃도는 모양인가 봐요.
이렇게 더울 때 계곡에 들어가서 두껍게 만들어진 등산화를 벗고, 등산화 속에 신었던 등산양말을 벗고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바지를 걷고 계곡물에 발을 담급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온몸이 땀이 범벅이 되도록 더운 상태에도 발을 물에 담그자마자 발에서부터 전신에 그 계곡물의 얼음장같이 시원함이 쫘악 스며들어옵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담근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아버지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담근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아버지가 계곡물이고 내 마음이 내 발 같아서 내 마음을 담근다는 얘기에요.
마음을 아버지께 담글 때 그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글 때 느낌이 있는 것처럼.

이 느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우리 자주 얘기하는 풍랑 만난 배 위로 이 사실을 가지고 가봅니다.

왜 풍랑 만난 일엽편주 위에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제자들은 난리를 치다가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는 꾸중을 듣게 됩니까?
믿음이 없다는 꾸중을 듣는 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사실 일엽편주에 몸을 담고 있다가 깜깜한 밤에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면 제자들처럼 무서워 떨지 않을 자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담근 곳이 제자들이 마음을 담그고 있는 곳과는 달라요.
제자들이 마음을 담그고 있는 곳은 풍랑이 일고 있는 배 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마음을 담그지 않으시고,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아버지에게 마음을 담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아버지에게 마음을 담그면, 그 담근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주무십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이 일어난 상황에 마음을 담그면 그 풍랑 일어난 상황에 담근 마음에 느낌이 전달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죽겠다는 아우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에 우리가 다 마음을 담그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뉴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담그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는 일에도 다 마음을 담그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 장의차가 지나갑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그지 않아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마음을 담그는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사실들에 동일하게 마음을 담그는 게 아니라 강도의 차이가 있고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아버지께 마음을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아버지께 담근 마음이 느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겁니다.
풍랑이 일 때든지 어떤 때든지 상관없이.
그러므로 하나님아버지께 마음을 담그면 돈 풍랑이 일어나도 잠잘 수 있고, 결혼 풍랑이 일어

나도 잠잘 수 있고, 건강 풍랑이 일어나도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건강에 내 마음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믿음이냐?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 건강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만 있으면 큰일 날 일이 없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뿌리치시니까 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싸여있다, 자식에 마음을 담근 것이고 자식을 믿는 겁니다.
자식의 문제가 어떠어떠하게 되면 내가 불행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믿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마음을 담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내 마음을 담그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들의 말을 전해 들은 것뿐이에요.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는 것을 전해들은 겁니다.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에요, 전해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고는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뿌리쳐버립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뿌리쳐버립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것은 illusion, 제자들의 환상이나 망상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했던 그 예언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예언에 집중하여 기대하다 보니까 illusion이 보였다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fiction이다, 소설 같은 이야기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아! 대단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보고될 때에 그 보고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과 마음을 담그는 믿음과는 다른 거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보고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아버지에게 마음을 담그는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인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아버지 품에 담갔다면 그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평강의 느낌이 어떻게 이 세상 어떤 사건에 의해서 허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풍랑 만난 일엽편주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주님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곡물에 발을 담갔을 때 차가운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아버지께 마음을 담갔으면 그게 느껴져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을 담그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미국 뉴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내 자식이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마음을 담그지는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은 사업에, 가족문제, 취직문제에, 돈이 없다는 문제에 담그고 있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내 마음을 담그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담그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담글 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마음을 담갔다면 어떤 느낌이 일어납니까?
계곡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 얼음장 같이 시원함이 전신에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담갔을 때는 마음에 어떤 느낌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사로의 부활과는 달라요.
나사로의 부활은 죽음 이쪽으로 다시 튕겨져 나왔다가 다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죽음이 없는 겁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에 마음을 담그게 될 때는 죽음을 넘어선 자리에 마음이 가있는 거예요, 이 몸이 죽기도 전에.
죽음을 잊어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현실생활이 바빠서 망각하며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마음을 담근다는 것은 마음이 죽음을 넘어서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부활에 가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의 사건도 아니고 아예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 있는 부활에 마음을 담갔다는 것은 죽음 이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내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마치 두꺼운 등산화를 신고 있던 사람이 거기서 발을 빼서 계곡물에 담갔을 때, 등산화 속에서 느끼던 느낌이 없어져 버리고 계곡물 속에서의 느낌만 있는 것처럼, 죽음 이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담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느낌이 없어요.
대신에 내 느낌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마음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서 느껴지는 것을 느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하면, 죽음의 문제가 전혀 두렵지가 않고 걱정도 안 되고, 마치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참수형이 정해져 있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사도바울이 기회만 있으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육체가 죽는다는 사실이 밥 한 끼 굶는다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문제로 취급이 되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이전에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린다는 얘깁니다.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좀 상하게 됩니다, 결혼이 늦어집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 합니다, 취직

이 늦어집니다, 이런 죽음 이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오직 죽음 넘어서 느껴지는 세계에서의 느낌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 믿음을 갖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느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늘의 느낌으로 마음이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계곡물에 발 담근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완악하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완악하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완악하다고 하는 비약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 오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완악하다고 그러시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두는 겁니다, 마음을 담그는 거예요.
어느 사실에 마음을 담그려면 기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곳으로부터 마음을 빼내야 되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마음을 담그지 못했다는 얘기는 마음을 지금 현재 담그고 있는 것에 굳건하게 붙잡고 있다는 얘깁니다.
즉,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사건인데 죽음 이전의 세계에 마음을 굳건히 담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완악하다는 얘기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에 마음을 담그려면 죽음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죽음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담그고 있던 것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죽음 이전에 이 세상의 일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완악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일어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마음이 옮겨져서 담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죽음 이전의 이 세계에 마음을 담그고 빼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있고, 죽음 너머로 마음이 가기에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이전의 이 세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보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무덤까지 그 마음이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실용성을 마리아는 마음속으로 기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면 묻히는 대로 그 마음이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부활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미 죽음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지금 죽음 이전의 세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낼름 끄집어내서 믿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사실에 마음을 담가야 되니까.
등산화에서 발을 빼서 계곡물에 담그듯이 죽음 이전의 세상에서 발을 빼야 되니까.
그런데 뺀다 뺀다 해서 빼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통해서만 은혜가 임하고, 우리 마음이 진짜 세상에서 발을 빼는,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담글 수가 있는 믿음이 성립한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다고 해도, 그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 이전의 문제에서 마음이 떠나고 죽음은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계곡에 발을 담갔을 때 느껴지는 시원함을 느끼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에 충만하게 가지시고 직장, 가정, 사회 어디든지 가서 살아가시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을 담그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대상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세상에서 발을 빼야 합니다.

세상에서 마음의 발을 빼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담겨지므로 그 느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